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의천의 입송구법, 정치적 결과 수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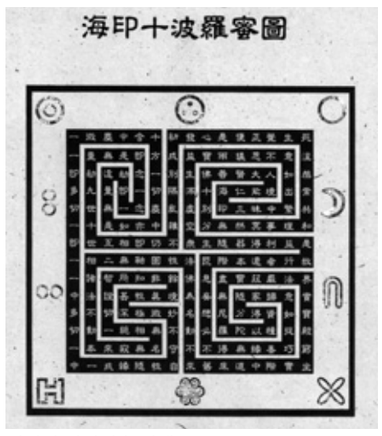
대각국사 의천 Ⅱ ㊤
大覺國師 義天; 1055~1101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의천 스님의 입송구법은 종교적인 열정과 순수성을 전제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치적 행위의 핵심은 정원법사 및 혜인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혜인원은 오늘날의 항주에 있는 고려사를 말하는데, 이 절은 의천 스님의 방문을 계기로 후에 고려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의천 스님의 짧은 입송구법 기간에 만난 인물들은 적지 않았고, 그와 교류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은 의천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그리고 의천 스님이 입적한 이후에도 의천 스님에 대한 사모의 정을 놓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의천 스님이 지속적으로 교유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역시 정원이었으며, 정원이 주석했던 혜인원 역시 그 교유의 대상이 되었다. 의천 스님의 입송구법에서 혜인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천 스님과 정원의 교유는 물론 인예태후를 비롯한 고려왕실의 지속적인 재정적 후원과 당시의 여·송 관계에서 혜인원이 상징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송 신종연간인 원풍 8년(1085), 이곳에 주석하던 정원을 방문한 의천 스님이 화엄종의 불전 주석서[玄要] 600여 상자를 제공함으로써 화엄교학 부흥의 기폭제를 제공한다. 이후 의천 스님의 형인 선종과 인예태후 역시 금자 〈화엄경〉 170권과 화엄경각(華嚴經閣)을 건립할 경비를 제공하였다. 정원이 입적한 이듬해인 1089년에는 의천 스님이 제자인 수개 등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고, 1099년에는 다시 화엄경각의 수리비로 금 2,000냥을 제공하였으며, 의천 스님은 입적하던 해인 1101년에도 송 영종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 편에 백금 천 수백 냥을 보내 노사나불과 보현보살, 문수보살을 봉안토록 하고 있다. 이 외 중국에 전해진 금석자료에 의하면, '高麗'의 2자가 추가된 〈금강경〉, 1095년의 대흥왕사판 〈금강경〉 등 총 7300여 질의 교장이 의천 스님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납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의천 스님의 혜인원에 대한 후원이 일시에 거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귀국 후 천태종을 개창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인요원 선사 같은 이와 지속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인원처럼 지속적인 후원을 그것도 고려 왕실 차원에서 지속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혜인원은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고 조명기 교수님에 의하면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모두 1010부 4858권, 그 중에 해동의 전적이 142부 402권이고, 거란의 전적이 39부 190여 권이며, 일본에서 구한 것이 〈인왕경소〉 1권이다. 따라서 나머지



의천의 화엄일승 법계도

약 4000여 권은 모두 송에서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이 4000여 권의 전적이 송에서 구한 것이라고 해도 송에서는 갖추어 구비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송의 교종 종파로서는 행하기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의천 스님과 고려 조정에서 송의 상인들을 활용하여 고려에 없는 장소(章疏)들을 비용을 제공하고 판각해서 수입한 사례들은, 의천 스님과 고려 조정이 그 장소(章疏)들을 마땅히 요청할 대상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송의 교종 사찰이나 승려들은 자력으로 장소(章疏)를 간행할 형편이 되지 못했음을 의천 스님이 귀국한 후 법회의 비용을 요청하거나, 의천 스님의 요청에 의하여 신구(新舊)의 장소(章疏)를 구하여 교열하고 판각할 것을 요청하거나, 의천 스님에게 새로 간행된 장소(章疏)들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장소(章疏)들을 모두 판각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화엄종 사문이었던 의천 스님이 화엄의 장소만은 대부분 판각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그 인출전적 역시 대부분 혜인원에 공여했으리라 보인다. 7000여 권에 이르는 혜인원 봉안 교장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외에 혜인원 혹은 정원법사와 관련된 장소(章疏)의 수집과 간행기록은 별도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가 〈문집〉에서 발견된다. 그 외에도 앞에서 본 것처럼 혜인원에는 수차례에 걸쳐 의천 스님 개인 차원에서 혹은 고려 조정 차원에서 금은재화가 헌납되어 불사의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후 명대 초반까지 300여 년간 혜인원의 성세가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혜인원이 소장하게 된 장소(章疏)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이다.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중세 불교설화집 〈사석집(沙石集)〉의 편저자 무주 이치엔(無住一圓) ㊤

민간의 입으로 통념을 바꾸다

쵸보지의 무주 좌상

어느 산사에 살고 있던 욕심 많은 승려가 엿을 만들어 혼자서 먹고 있었다. 이것을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보관하여 놓아두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아이가 먹지 못하도록 "'이것은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해 두었지만, 이 아이는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승려가 바깥에 볼일이 있어 외출하자마자 선반에서 엿을 꺼낼 때, 그만 엿단지를 엎어 버렸다. 평소 입고 있던 옷에도 머리에도 엿이 묻어버렸다. 늘 먹고 싶다고 생각했으므로 두 번, 세 번 먹고 싶은 만큼 먹었으나 승려의 비장의 물병이 낙수물 떨어지는 돌 위에 부딪혀 깨져 버렸다. 승려가 돌아왔을 때, 이 아이는 앙앙거리며 울고 있었다. "왜 울고 있느냐"고 물으니, "소중한 물병을 잘못해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단맞을까 생각하니 자신이 저지른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한 번 먹어도 죽지 않고, 두 번 세 번 먹어도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옷소매에 묻히고 머리에 묻혀보기도 했습니다만 또한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엿은 먹어 없어져 버렸고, 물병은 깨져버렸다. 욕심 많은 승려는 어떤 것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이의 지혜는 대단한 것이다. 학문의 재능으로 보아도 전혀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무주는 민담 등 화예의 선구자
민간포교 설화 등 모아 저술해

중세 무주 이치엔(1226~1312)의 불교설화집인 〈사석집〉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는 18세에 현재의 이바라기현 동북부 지방에 있는 호온지(法音寺)에서 출가하였다. 소·대승의 불전을 공부한 그는 지관, 선, 진언 등을 수행했다. 37세 때 비로소 나고야에 자리한 쵸보지(長母寺)의 주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뒤에 미에현 호케지(法華寺)의 주지도 겸직하면서 50여년을 지냈다. 이 〈사석집〉 전10권이 탈고된 것은 1283년 58세 때의 일이다. 또한 이후 노년의 정력을 기울여 74세 때 〈성재집(聖財集)〉 3권, 80세 때 〈잡담집(雜談集)〉 10권을 탈고했다.

일본 내에서 무주는 일본 고유의 시가(詩歌)인 와카(和歌)가 즉, 불교의 다라니라는 설을 제창하여 낙어(落語), 만담(漫談), 강담(講談) 등을 칭하는 화예(話藝)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한다.

무주는 〈사석집〉 서문에서 "사금을 모으고자 하는 자는 모래를 모아 여기에서 채취한다. 옥을 가지고 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돌을 주워 이것을 갈고 닦는다. 따라서 사석집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였다.

앞에 제시한 설화도 이러한 잡다한 신변의 일이나 민중 가운데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 일상의 지혜나 불교 교의의 심오한 진리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불교관련 기록문화는 고대의 일본영이기, 왕생집류, 영험기 등을 볼 때, 불교의 다양한 민간포교나 전승과정에서 파생된 이야기들이 주가 되었다. 무주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의 토착화는, 높은 봉우리의 가르침이 골짜기와 시내로 흘러들듯 민간의 입을 통해 대중의 통념을 바꿔간 일상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설화집은 먼저 제1권에 신불습합(神佛習合)에 기반한 본지수적(本地垂迹)의 설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중세에 이르러 일본에 불교가 본격적인 토착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불교라는 이문화(異文化)가 이미 확립된 전통신앙과의 습합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불(佛)이라고 하는 이신(異神)이 본지이며, 수많은 토착신이 수적이라고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는 민간포교를 담당했던 무명 불교인들의 희생적 정열이 없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조계종, 친정부 성향 탓 사회운동 소홀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최연과 여익구의 노력은
민불련 구성이라는 결실로

"공동 불교야학연합회 공동세미나로 교사들 공동연수도 시키고 이랬어요."

당시 불교야학연합회가 결성됐음을 말한다. 노동자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컸다는 점을 반증한다. 비록 수사 당국에 의해 와해되었지만 그 학생운동은 승가단체인 지도법사단과 연계되면서 80년대의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배경에는 최연과 여익구의 활동 재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최연은 1979년 말 제대와 함께 불교운동에 복귀하였고, 여익구도 이 시기에 승려 생활을 접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한다. 최연이 대불련을 중심으로 활동한 배경이 있다면 여익구는 탄허 스님을 시봉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스님들과 교류하였다. 최연이 대불련 후배들을 운집시켰다면 여익구는 승려 중심의 지도법사단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대불련 내에서 어쨌든 인제 거기는 (여)익구 형이 있으니까 진보적인 활동도 하는데 민중불교적인 그거보다도 더 뛰쳐나와서 하는 이건 더 급진적이다. 아주 급진적이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대불련 내에서는 그러니까 대불련 내에서는 차곡차곡 그런 어떤 기반들을 쌓았지요. 지도법사단들 의식화 시키는 거 하고 대중들을 일정부분 있잖아 의식을 고양시키는 대회도 하고 그래하고 저희들이 사원화 운동하면서도 여름대회 할 때는 간사로 참여해주고 다 했어요. 이 빠져나온 게 아니고 그 대불련은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그 헤어집니까? 익구 형하고 안 헤어져.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이제 민불련(민중불교운동연합)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둘의 노력은 마침내 1985년 '민불련'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최연의 대불련 활동과 여익구의 민청학련 이후 이어지는 활동에

개운사 독성각 모습

서 현대 한국불교운동사의 일면을 보게 된다. 그들의 활동이 이어질 때 승가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최연은 대불련이 승가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자평한다.

"70년대 까지만해도 그 사실 정권과 너무 밀착돼 가 있었고…."

"조계종이 너무나 있잖아 등한시 핸 거예요. 그럼 지금 조계종의 많은 문건과 토론에서도 나오는 자기 반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인제 그 이후에 인제 요러한 스님들의 의식이 계기가 (변하게) 된 게 사실은 1976년도에 생기게 됩니다."

"사회 참여도 하고 또 어어 그 어떤 그 포교 새로운 어떤 전략과 전술 즉 포교 방법론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불련에서 계속 해왔죠."

승가, 구체적으로 조계종이 대 사회운동에 나서지 못한 원인은 조계종단의 정화운동과 친정부적 성향이었다고 말한다. 정화과정에서 비구승와 대처승 간의 대립으로 불교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렸음과 동시에 스님들의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것은 최연 자신이 대불련 회장이었을 당시(1976)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승가의 대사회운동을 시작한 것은 10·27법난 이후 구성된 대불련 지도법사단이라고 말한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글 · 김명우 | 224쪽 | 값 9,000원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유식 초심자를 위한 책으로 유식의 깊고 넓은 세계로 안내한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경전 읽기는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살과 피, 호흡과 걸음걸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된다.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선수행으로서의 간경 등 간경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경전 읽기
글 · 고명석 | 168쪽 | 값 9,000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 읽기
간경입문
민주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